

新年辭

오늘도 태양은 뜬다는 말처럼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다. 새해 첫 태양은 지난해의 먹구름을 뚫고 해맑은 얼굴로 솟아 올랐다. 올해는 갑진년(甲辰年)으로 청룡의 해다. 십이간지 중 유일반 상상의 동물인 용은 신성한 힘을 가진 영물로 여겨졌다. 그중에서도 청룡은 동쪽을 수호하는 신성한 동물로 창조와 생명, 신생(新生)을 의미한다. 올해 중소기업계가 희망을 담아 선정한 운외창천(雲外蒼天)과도 일맥 상통한다. '어두운 구름을 뚫고 나오면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는 의미처럼 청룡의 기운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난관을 극복하면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되풀이 보면 지난해는 권리망의(見利思義)라는 사자성어로 정리할 만하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어버렸다'는 뜻으로 사회 전반에서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각자도생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정치판에선 협치와 소통은 은데간데 없고 분열과 갈등만이 난무했고 경제계에선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등으로 서민들은 어느해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사회적으로는 흥분도 장군 흉상 철거와 광주 정울성 공원 조성을 놓고 때아닌 이념 논쟁이 일어 국민들을 양 극단으로 갈라놓았다.

세계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정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전쟁이 발발해 지구촌 전쟁이 일상이 됐고 한·미·일 공조에 맞서 북·중·러가 밀착하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통일본 대지진 후 12년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국내에서 큰 반발이 일어난 가운데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이 비등했다. 광주에서 시작된 근로정신대 할머니 소송에서 우리 사법부가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묻는 판결

을 내렸는데도 정부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것도 현 정부의 대일 외교 단면을 보여준다. 생생형 인공지능 챗GPT가 등장에 창조적 혁신이란 충격을 안긴 해이기도 했다.

광주·전남지역으로 눈을 돌리면 그나마 나왔다. 굼직굼직한 현안들이 조금이나마 실마리를 찾아가는 한 해였다. 노잼도시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광주시는 더 현대,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신세계 확장 등 '복합쇼핑몰 3인방' 건립 가시화로 꺾임없이 변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대 현안사업으로 담보상태에 놓여있던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문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무안군의 수용 결정만 남겨두게 됐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실제 위성을 우주로 실어 나르는 첫 실전 발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한국은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일곱 번째 국가가 됐다. 연말에 정부가 발표한 남부권광역관광개발은 이른바 'K관광휴양벨트 사업'으로 불리며 전남을 중심으로 한반도 남부권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육성할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전체 사업비의 43%인 1조 3000억 원이 전남에 투자된다.

전두환 손자 전우원의 광주 방문과 참회는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용기있는 행동으로 기억된다. 영화 '서울의 봄'의 흥행과 함께 광주시민들에게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 한 해였다.

갑진년은 지난해의 성과를 좋은 결실로 맺고

황에서 부동층 비율도 30%를 넘어 의미있는 의석의 제 3당 출현이 가능할지 여부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해 신당 창당에 들어갔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탈당을 기정사실화 하고 신당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 당에서 얼마나 원심력이 작용하느냐와 금태섭·양향자 신당과의 빅텐트 성사에 따라 제 3당의 파괴력이 결정될 것이다.

어느때보다 복잡한 구도 속에 호남정치의 좌표와 복원 여부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전국적으로는 제 3당의 선전 가능성도 있지만 민주당 텃밭인 호남으로만 좁혀 본다면 파괴력은 미미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내 갈등 해소와 혁신 방안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물갈이 여론이 높지만 그렇다고 2016년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의 정치적 시험대가 될 것이다. 해를 넘긴 달빛철도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 4월 총선 전까지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다. 만약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24년 속원사업을 무산시킨 정치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광주 복합쇼핑몰 3인방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전남의 K관광휴양벨트를 본 궤도에 올려 광주 전남으로 관광객을 유인하는 것도 올해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광주의 복합쇼핑몰과 전남의 관광자원인 문화예술, 섬 등을 연계한다면 머무르는 관광지로 거듭나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전남의 속원인 국립대 의과대학 유치도 올해 성과로 담아야 한다. 다행히 지난수 중원에 대한 물갈이 여론이 압도적인 터라 여건은 어느때보다 좋다. 전남에만 유일하게 국립 의과대학이 없다는 것도 유지 명분으로 충분하다.

지난해가 권리망의(見利思義)의 해였다면 올해는 권리사의(見利思義)의 해가 되어야 한다. 분열과 갈등이 지배하는 현상에서 정치인부터 자신의 이익보다 대의명분을 우선시하는 권리사의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해법은 지역 현안들을 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올해로 창사 72주년을 맞는 광주일보는 늘 그랬던 것처럼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정론을 편다'는 사시(社是)를 받들어 공정하고 균형잡힌 보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 총선의 해를 맞아 심층적인 분석과 논평을 통해 독자들의 올바른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문화 창달과 지역발전의 기수가 되겠다는 다짐처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현안에 대한 방향 제시에도 역할을 다하겠다. 새해 아침,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한다.

전리사의 정신으로 통합의 리더십 보여달라

(見利思義)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는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발의해 헌정 사상 최다 의원 발의라는 기록을 남겼지만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루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북선·고속철도'로 건설하자는 요구를 '단선·일반철도'로 양보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어렵게 통과했지만 총선을 앞둔 일부 국회의원들의 눈치보기로 법사위에 상정하지 못했다.

전남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잇따른 낭보로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순천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권원도시로 발돋움했다. 7개월 동안 98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해 333억의 수익을 달성하는 등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다. 5월에는

부족한 점은 보충해 완성해가는 한 해가 되어 한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정치의 해다.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 등 지구촌 50여개 국가에서 크고 작은 선거가 치러진다. 관심은 단연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다. 이번 총선은 집권 3년차인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의 선거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제 1당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격전을 벌일 것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 질 수 없는 선거이고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처럼 거대 야당은 아닐지라도 과반 이상의 의석 확보로 정국 주도권을 잡고 차기 대선에서 정권 창출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이다.

변수는 두 당의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는 상

안철수의 국민의당 열풍과 같은 현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선거구가 늘어난 순천에서의 국민의힘 및 이준석 신당 후보의 선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호남 정치인들이 민주당의 주류로 목소리를 내는 호남정치 복원은 지역 유권자들의 염원이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만큼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버리고 지역발전 견인할 후보를 선택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마무리 지지 못한 광주·전남 현안들도 올해는 깔끔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광주공항 이전 문제다. 시도지사가 무안으로의 통합 이전을 합의한 만큼 무안군민들을 설득해 내야 한다. 무안공항 문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수필의 향기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갑진년 푸른 용(龍)의 해다. 용하면 우리 광주다. 영산강과 황룡강은 굽이굽이 흐르면서 마을을 형성했고 그 마을 지명 곳곳에 용이 살고 있다. 한 마리는 우치공원이 있는 생용동에서 용전동·용강동을 거쳐 용두교 아래 신용동 쪼름쪼름 등룡산 방향으로 내려가고, 또한 마리는 용진산을 휘돌아 오룡동·용동·용곡동을 돌아 북룡산의 용봉동·황룡동으로 흘러내린 강, 황룡강이다. 두 마리 용은 용봉동에서 만나 승천보로 흘러간다. 이 지형은 마치 거대한 두 용이 쪼름쪼름대고 형국이며, 어찌 멀지않아 이곳에 큰 용이 출현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동안 광주에 정·재계 예술 문화계 등에 수많은 인재가 뜨고 졌지만 아쉽게도 딱히 선두 주자가 없다. 몇은 진흥당 냄새를 남기고 떠나기도 했다. 광주 하면 바로 떠오르는 맑고 향기로운 신화적인 인물, 용 한 마리쯤 있었으면 좋겠다. 동학과 독립운동, 여운사건과 독재정권, 5.18로 이

다시 처음처럼

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고장은 핏박과 차별을 너무 받아서 쉽사리 나서려는 이가 없었다. 그렇게 인재와 동량들이 쓸쓸히 초야에 묻혔지만, 이제는 누구나 훌훌했다고 감사하다고 여길 인물 몇 명쯤 나타나 때이다.

이돈명 변호사나 김황식 총리, 박헌재, 송기숙, 법정, 정약용, 김환기 등 생각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간디나 처칠, 고흐나 헤밍웨이, 마더 테레사나 바보 김수환 추기경 같은 인물이 그림자. 복룡이었다면 모습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살다 보면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 환호작약할 때가 많다. 게으름과 자만심에 빠져 경솔할 때도 있다. 허나 새해가 아니더라도 항상 새롭게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은 언제나 좋다.

회장도 처음에는 노동자였고, 목사나 주지도 신도부터 시작했다. 장관 사장 기관장도 처음에는 일반인 평사원이었듯이 누구나 처음부터 용인 사람은 없다.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면 자기 아집을 벗어나서 맑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새해는 그렇게 낫은 곳으로 돌아가 한 해를 계획하고 설계했으면 한다. 첫 직장 처음 출근하는 마음으로, 첫사랑처럼, 처음 만나는 마음가짐으로 용의 해를 출발했으면 싶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겨울 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

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암울했던 1960년대, 20년 20일 동안, 껌껌한 교도소라는 절망 속에서도 사색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던 시대의 지식인, 긍정의 힘을 찾으려 했던 신영복 교수처럼...

새해면 더 많은 이들이 무등산을 오른다. 산을 오를 때 내딛는 첫발처럼 험차고 꿈 가득하길 바란다. 무등산은 그냥 산이 아니라 우리 얼굴이고 자체가 큰 바위 얼굴이다. 영산강과 황룡강, 두 마리 용을 따라 자전거를 탄다. 강줄기를 따라 폐담을 밟으면서 큰 뜻을 품어본다.

윤한봉, 박관현, 이한열 열사가 살았다면 가능했을까. 여론 감장하, 이태석 신부,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는 용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처럼 용의 기운을 타고 우리 고장에서 어찌 쪽 펴고 날개를 펴는 이가 새해에 나오기를 소망한다.

혹여 곁에 있는데 발걸 못하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고 키워야지 싶다. 나아가 우리 모두 내가 용이 되겠다, 아니면 각자가 하나하나 비늘이 되어 거대한 용의 일부가 되는 한 해였으면 좋겠다.

2024년 새 아침이다. 새 옷 입을 이처럼, 선물 받은 새해, 푸듯푸듯 새 학기처럼, 새봄처럼, 호기심 가득한 아이처럼, 생기발랄한 젊은이처럼 시작했으면 좋겠다.

처음은 누구나 생의 에너지가 넘친다. 앞드려 있었던 도시 광주, 용의 해를 맞이하여 우뚝 일어나 무등산과 월출산 어딘가 있을 여의주를 물고 활짝 비상하기를 바란다.

기고



김지희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2022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첫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입소 경험에 있는 9-18세 위기청소년 4399명 중 44.4%가 부모 등으로부터 신체폭력을, 46.0%가 언어폭력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발생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전체 아동학대 행위자 중 약 80%가 부모에 의한 학대로 신고된다.

학대피해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권리의 주체임을 알고 진정한 의미의 아동권리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대피해 아동·청소년의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화'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에서는 지난 2020년 5월 아동 권익 향상 등을 위해 민법상 징계권을 삭제하였으며, 체벌 금지를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또한 학대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해

동 안전망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 보호·돌봄의 공백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스트레스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위기아동·청소년을 학대로부터 지켜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는 아동의 발달과정 이해, 양육 스트레스 관리,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양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모교육을 강화한다는 주요 정책과제 등을 발표했다. 아동학대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재학대 예방을 위한 보호자 양육의 질적 성장과 그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학대피해 아동·청소년이 이야기 하는 '우리들이 진짜 원하는 것'에 대하여 귀기울이고 그에 대한 부모들의 성숙한 양육 태도가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방향의 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학대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내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지역사회 내 여러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학대피해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킹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각 기관 및 부처별로 가지고 있는 목적이 서로 달라,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회안전망으로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학대피해 아동·청소년들을 만나게 되면 가족을 하여 무리지어 생활을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개입을 거부하는 등 아이들을 사

회적 안전체계 안에서 보호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확장시켜 학대피해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주요 기관인 교육청 및 학교, 시·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찰 등 아이들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각 기관별 역할 체계와 정례화된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학대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아동은 보호가 필요한 존재임과 동시에 존엄·권리를 지닌 권리의 주체이다. '아동 행복'은 성인기까지 연결되어 개인 전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국가 발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요소이다.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어 비난이나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아동학대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행복한 아동의 모습을 비취침으로써 우리사회가 아이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

나태주 시인의 '꽃말'이란 시에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는 구절이 있다. 한 송이의 꽃을 피우내기 위해 해, 물, 태양, 햇빛 등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듯 오래 보고 피워 내야 할 꽃인 아동·청소년도 그러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이란 싹을 기대와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해 주고자 하는 성숙한 시민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無等鼓

NFL(미국 프로풋볼)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Super Bowl)'은 미국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1억 명을 TV 앞으로 불러들이는 미국 최대 스포츠 이벤트다. 슈퍼볼이 열리는 '슈퍼 선데이'(매년 2월 첫째 주 일요일·올해는 2월 11일)는 풋볼로 미 대륙이 하나 되는 날이다. 집집마다 파티를 열어 가족·지인들과 즐기면서 '대통령 취임식도 슈퍼볼과 겹치면 연가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영국 일간 가디언이 올해 50개가 넘는 국가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을 '슈퍼볼'에 빗대 '민주주의의 슈퍼볼'이라고 소개했다. 미국

민주주의의 슈퍼볼

는 민주적인가'라는 책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 몽테스키외, 루소 등의 입장을 전하고 고대 아테네인들에게 비민주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선거가 어떻게 균형 체제를 갖추면서 민주적으로 변모되는지를 분석했다. 선출직 대표는 투표하는 사람과는 사회적으로 다른 '탁월한' 시민일 수밖에 없고 대표의 결정과 행동은 뽑은 사람들의 의지와 다를 수 있어 불평등하고 비민주적 형태를 보이지만 재선의 대상으로 유권자의 평가를 받게 되면서 선거가 모든 시민이 통치

자를 모면하고 해야 할 동등할 권리를 갖게 되는 민주적 모습을 띠게 된다

대선을 비롯해 러시아, 대만, 인도, 이란 등 선거가 치러지는 국가 인구를 합하면 42억 명에 이른다 '전례없는 투표 이벤트'라는 말이 나올만하다. 숫자 때문은 아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세계적 권력 지형도를 새롭게 그리고 민감한 국제 이슈의 향방에 변화를 쥐 40억 명 이상 유권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선거로 대표자를 뽑는 게 민주주의의 대표로 인식되지 않을 때도 있었다. 미 뉴욕대 정치학 교수 버나드 마빙은 '선거

거가 모든 시민이 통치자를 모면하고 해야 할 동등할 권리를 갖게 되는 민주적 모습을 띠게 된다

다'는 것이다.

올해 총선은 중요한 시기에 치러진다. 한반도 긴장 고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더미다. 흥분도 장군 흉상 이전, 정울성 기념사업 등 우리 사회를 분열시킨 극단적 반목도 다독여야 한다. 대한민국호의 항로를 결정할 대표를 선출하고 평가하는 것, 유권자의 최우선 책무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정성이 모여면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김경아·광주시 서구 화정동)

'사랑의 온도탑' 새해에는 따뜻한 온정을

가족들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했다 연말연시 분위기를 만끽했다. 예술극장 외벽에 설치된 미디어아트 작품은 우리 가족을 비롯해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했다. 5·18 광장에서 만난 대형 트리와 음악부수도 연말 분위기를 더했다.

연제나처럼 광장에 세워진 '사랑의 온도탑'을 보다 깜짝 놀랐다. 예전에는 온도가 꽤 높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50도를 넘지 못하고 있었다.

광주·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제막한 광주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29일 현재 47.4도에 그쳤고, 전국 평균

80.6도에 한참 못 미친다고 한다. 모금 목표액인 50억7천만원 중 24억458만여원이 모인 셈이다.

2023년은 경기가 어렵고 물가는 오르는 등 많은 이들에게 힘든 해였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또 대우유니아 사태와 건설업계 경영 어려움으로 지역민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기부가 예년보다 줄어든 것 같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정성이 모여면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김경아·광주시 서구 화정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주국 신형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52	회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반 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